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다

전남도, 66억 투입 총연장 36㎞ 올해 개설

목포·순천·광양시 등 전남도 내 5개 시 지역에 총 길이 36㎞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올해 개설된다.

전남도는 12일 정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목포와 순천·여수·광양·나주시 등 5개 도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을 시범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도비 33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입, 5개 시 지역에 총 연장 36㎞ 구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목포시에는 ‘백년로 연동광장~영산강 하구둑’까지 생활형 도로 13.6㎞ 구간이, 여수시는 ‘소라면 사곡 3구’ 일대의 해안 관광 및 레저용 도로 5.6㎞ 구간이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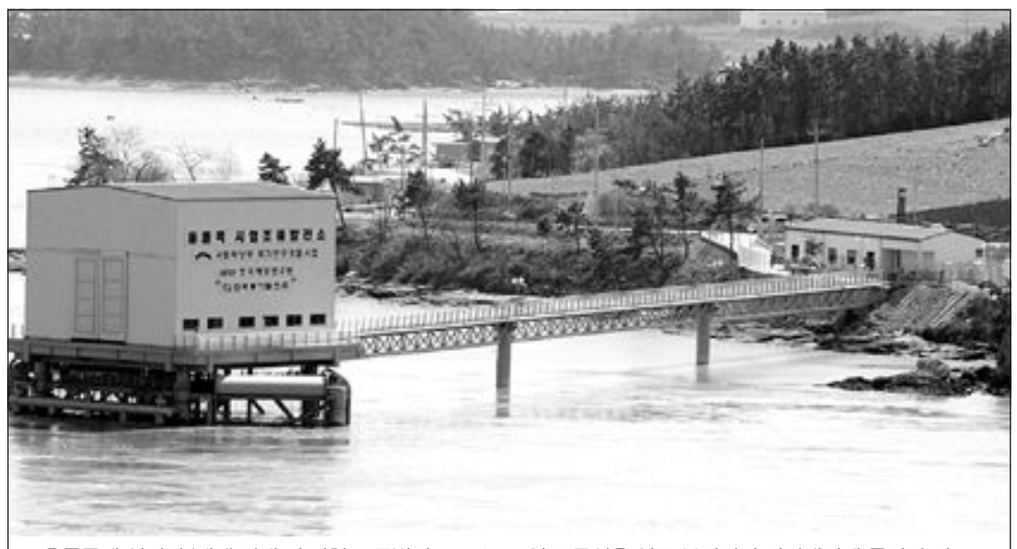
또 순천시는 ‘덕연동 연향 1지구 일원’ 생활형 도로 4㎞ 구간과 광양시는 ‘금호동 일원’ 생활형 도로 4㎞ 구간, 나주시는 ‘나주읍성~영산포’까지 생활·레저용 도로 4.6㎞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자전거 전용도로사업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사업추진 목표와 계획의 적합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위해 ‘세부 설계지침’을 마련해 각 시·군에 시달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사업효과와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도내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도 전남이 다른 시·도보다 우위를 선점해 앞으로 자전거 도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울돌목에 설치된 ‘세계 최대급’ 시험 조류발전소. 오는 14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기생산에 들어갈 이 조류발전소에는 500KW 발전기 2대가 설치됐다.

울돌목 세계 최대 조류발전소 가동

착공 4년만에 500KW 발전기 2대서 전기 생산

‘세계 최대급’ 시험 조류발전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동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진도군 군내면 울돌목에서 착공 4년 만에 1천KW(500KW 발전기 2대) 시험 조류발전소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기 생산에 들어간다.

조류발전소가 설치된 울돌목(명량해협)은 폭이 294m 정도지만, 유속이 9.5~12노트에 달할 정도여서 조류 발전의 최적지로 꼽혀왔다. 또한,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30여 척 왜선을 무찌르면서 명량해전을 이끌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조류발전소에는 수직축 헬리컬 터빈이 설치됐으며, 발전 구조물은 상부 하우스를 포함해 가로 16m, 세로 36m, 높이 48m에 총 중량이 1천t 규모로 세계 최대급 시험 조류발전소다. 이 조류발전소는 400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조류발전소는 2005년 4월 착공 후 빠른 조류 속에서 진행된 고난도의 해상공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착공 4년 만에 준공됐다.

전남도는 향후 1년간 시험운전을 한 뒤 오는 2015년까지 울돌목(50MW)과 장죽수도(150MW), 맹골수도(250MW) 등에 ‘상용 조류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3곳의 상용 조류발전소가 건설되면 연간 1천100GWh 청정에너지 생산효과와 180만 배럴의 원유 수입 대체효과, 63만t의 이산화탄소 줄이기 효과가 기대되며, 4만6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호화판 지방청사 맘대로 못지어

행안부 내달 시행 …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거쳐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총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논란을 빚었던 ‘호화’ 청사 신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총 사업비로 500억원 이상, 건축비(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부대경비 제외)로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청사나 시민회관 같은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섬 주민 응급 의료지원 해경 경비함이 맡는다

응급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해경 경비함을 이용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은 12일 인천 연안부두에 정박한 ‘3005 경비함’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금 9억7천만 원을 지원받아 1차로 13척의 경비함정에 해양원격응급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도서 지역과 선박 등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해 응급 환자가 생겨도 초동 응급조치 시스템이 빈약해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연합뉴스

“경찰·소방공무원 공채 응시 연령 제한은 차별”

인권위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나이에 의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관(순경·간부후보생)과 소방관(소방사·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잇따르자 이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체력은 개인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 없이 막연히 일정한 나이를 기준 삼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관은 직무 특성상 신체 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를 채용해야 한다”며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연령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도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은 20kg 이상의 장비를 착용한 채 격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인권위 권고를 반박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우린 허리가 부러져도 모른 체 …

음주·무면허 사건처리 15일로 단축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안은 각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을 30%에서 26%로 낮췄다. 대신 전체 유류세 규모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에 붙는 탄력세율은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 탄력세율은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또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의 경우 70%로 설정했다.

/연합뉴스

유족 반대해도 장기기증 가능

사망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한 경우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복지부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장기기증 관련단체 등과 두 달여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현재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자신이 이미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유족 2명의 기증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이뤄진다.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본인의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는 단점과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또 묻는 과정에서 윤리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측면을 보완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의 경우에는 기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족의 숫자를 현재 선순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증 동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의 순서로 받게 돼 있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는 자신이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를 기증받을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족의 동의만 얻으면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순천제일대학 설립자 성임옥(빅토리아노) 여사께서 2009년 5월 12일 (음력 4월 18일) 오후 5시 3분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순천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발인일시 : 2009년 5월 15일 오전 11시
영결식장 : 순천제일대학 성심관광장
장 지 : 순천시 덕월동 산9-3번지

아 들 : 성 규 제
며 느 리 : 송 경 희
손 녀 : 성 시 윤 성 시 원

장례위원장 : 이 원 근
장례위원 : 김영화 김선식 김 철 공영대 이짐로 박성배 정현섭 박정남 이선호

연 락 처 : 성가롤로 장례식장 (061)722-4444
순천제일대학 (061)740-1201

(조화는 정중히 사절하오며 조의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코자 합니다)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장 공고

설립자 故성임옥여사 영결식을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장으로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 인 일 시 : 2009년 5월 15일 오전 11시
영 결 식 장 : 순천제일대학 성심관광장
장례위원장 : 이 원 근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謹 弔

삼가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설립자 故성임옥 여사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임원
순천제일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일동

謹 弔

삼가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설립자 故성임옥 여사의 명복을 빕니다

순천제일대학 부설 유치원 교직원 일동
순천제일대학 부설 어린이집 교직원 일동